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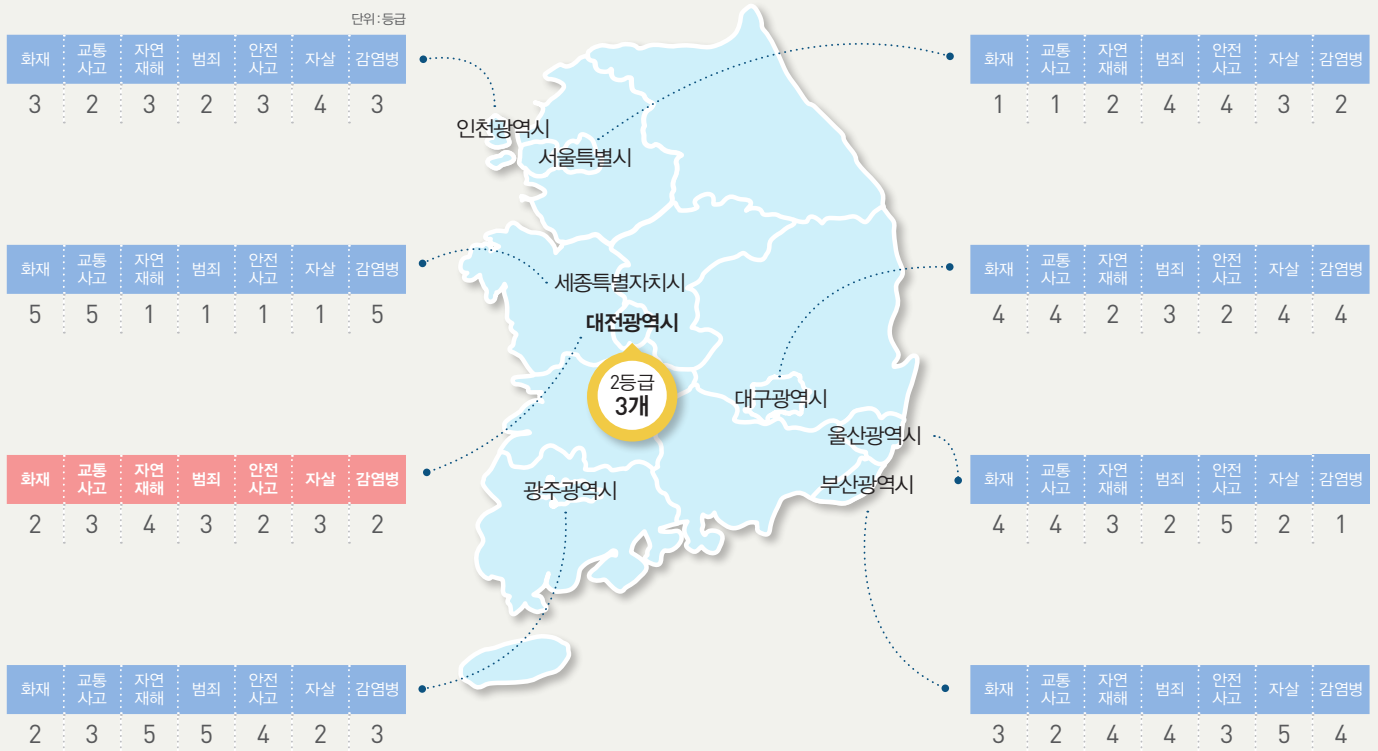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BRIEF

2015
No.47

발행처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발행인 | 유재일 편집인 | 주혜진 디자인 | 디자인스튜디오203 대전 발행일 | 2015. 11. 30.

우리동네 안녕(安寧)한가요?



01 특별 · 광역시 지역안전지수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5년 11월 5일 전국 시·도, 시·군·구의 7개 분야(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했다. 서울특별시에는 화재, 교통사고 분야에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분야에서, 울산광역시에는 감염병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대전의 지역안전지수는 화재, 안전사고, 감염병 분야에서 2등급을, 교통, 범죄, 자살 분야에서 3등급, 자연재해 분야에서 4등급을 받았다.

* (지역안전지수)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 매년 전년도 안전관련 주요통계를 위해지표 (사망·사고건수), 취약지표(위해지표 가중), 경감지표(위해지표 경감)로 구분하여 산출식에 따라 계산하며, 각 분야는 다음과 같음 ① 화재, ② 교통사고, ③ 자연재해, ④ 범죄, ⑤ 안전사고, ⑥ 자살, ⑦ 감염병

* 국민들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와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www.safemap.go.kr)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안전등급을 확인할 수 있음

* 자료출처: 국가안전처, 지역안전지수 보도자료(2015.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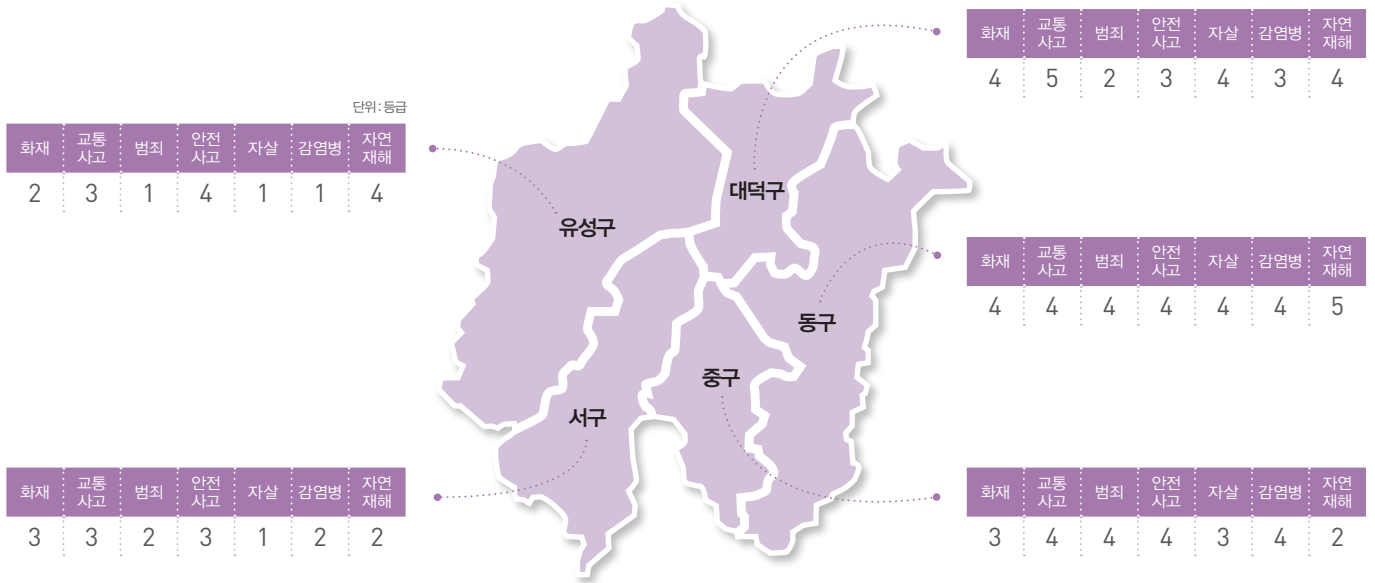
* 등급의 의미: 시·도, 시·군·구 등 지역 유형별로 그룹을 지어 최고 1등급에서 최저 5등급을 부여함



02 전국 시·군·구 지역안전지수

전국 시·군·구 지역안전지수에서 대구 달성군은 6개 분야 1등급, 경북 울릉군, 충북 증평군은 5개 분야 1등급, 서울 송파구, 부산 기장군,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경기 수원, 경기 군포시는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대전의 5개 자치구 가운데 서구는 자살 분야에서 1등급을, 유성구는 자살 분야와 감염병 분야에서 1등급의 지역안전지수를 받았다.

대전시 5개 자치구 지역안전지수



지역안전지수 핵심지표

분야	위해지표(8)	취약지표(17)	경감지표(10)
화재	화재 사망자수 화재 발생건수	재난약자수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수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업체수	병상수 재정자주도 도시지역면적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지수 ※ 고속도로사망자 미포함	재난약자수, 기초수급자수 의료보장사업장수, 자동차등록대수	의료기관수, 인구밀도 구조구급대원수
범죄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	총전입자수, 인구밀도 기초수급자수, 제조업 업체수 음식점 및 주점업 업체수	경찰관서수
안전사고	안전사고 발생건수	하천면적, 산림면적 재난약자수, 시군구외 전입자수 건설업 종사자수, 제조업 종사자수	의료보험료 수납액
자살	자살 사망자수	고령인구수, 혼인귀화자수,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수, 기초수급자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수
감염병	감염병 사망자수	건강보험급여실적, 고령인구수 기초수급자수, 도시지역면적	의료기관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자연재해	지역안전도진단결과		

* 자료출처: 국가안전처, 지역안전지수 보도자료(2015.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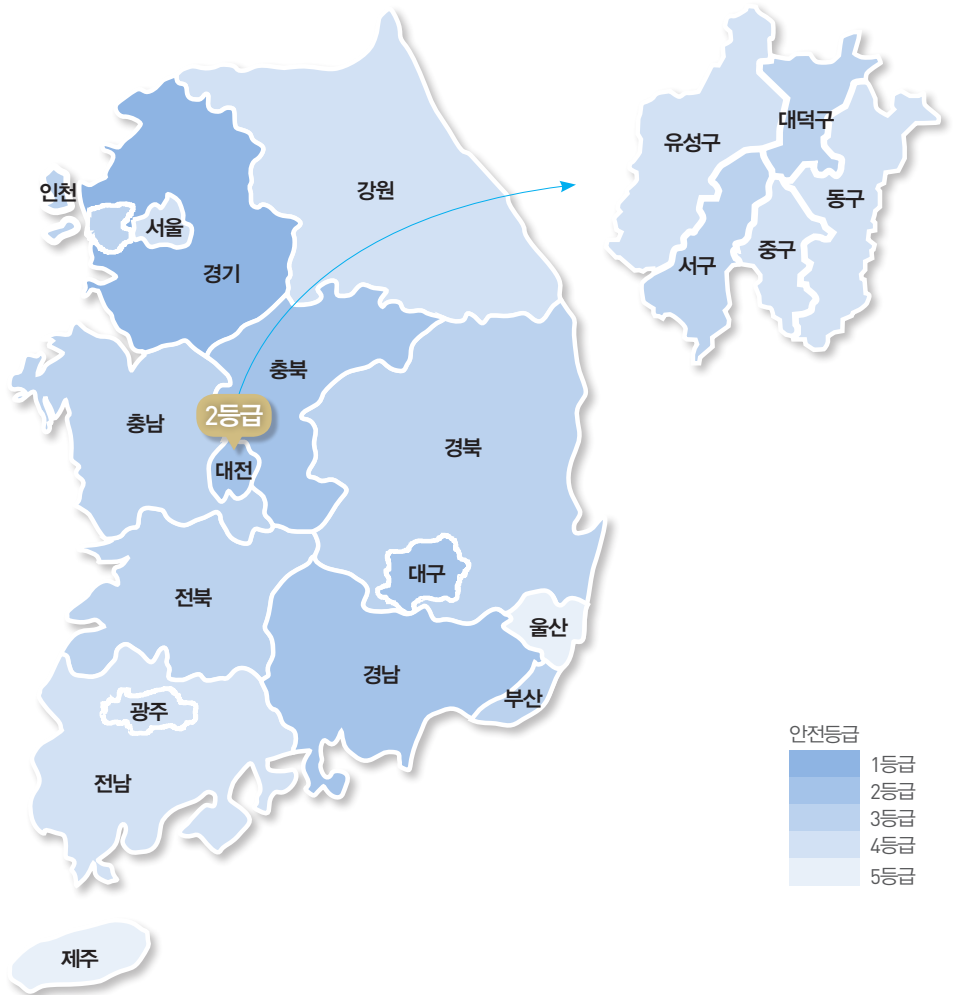
* 지역안전지수 = 100 - (위해지표 + 취약지표 - 경감지표)

*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 중 위해지표 및 상호 인과관계가 입증된 35개 핵심지표를 사용하여 7개 분야 안전지수 산출

03 전국 안전사고분야 지역안전지수

특히, 7개 분야 가운데 안전사고 분야는 국제수준에 비해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의 경우, 안전사고분야에서 2등급으로 나타났으나 5개 자치구에서 서구와 대덕구가 3등급을, 유성구, 중구, 동구는 4등급으로 대체적으로 낮은 지역안전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 안전사고분야 = 100 - (안전사고 발생건수 + 하천면적, 산림면적, 재난약자수, 시군구외전입자수, 건설업 및 제조업종사자수 - 의료보험료수납액)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모니터단의 목소리 듣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동구·대덕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2015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11월 24일 '2015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단 운영 최종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종 워크숍에는 모니터단,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활동 내용과 성인지적인 정책 제안사항 등의 결과를 공유하였고 더 나은 성평등한 개선안을 제안했다. 모니터단은 최종워크숍에서 중앙시장의 홈페이지 및 고객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 여성상인에 대한 지원 및 교육, 중리행복길 베희시장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공(유모차 대여, 유아휴게실)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했고, 전북대학교 심준영 박사, 중도일보 김의화 부장이 토론에 참여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향을 제안했다.

